

고규홍의 '나무 생각'



먼 훗날의 미세먼지 생각

'나무'를 키워드로 검색되는 뉴스가 부쩍 늘었다. 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이는 순전히 미세먼지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공중 물했던 짙빛 겨울에 이어, 찬란해야 할 봄조차 우울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나무 심기에 대한 관심도 폭증했다. 나무 한 그루가 한 해 동안 평균 에스프레소 한 잔 분량인 35.7그램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그건 대략 40년쯤 자란 나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새로 심은 나무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미세먼지 측정 실험 결과도 소개되곤 한다. 자동차 도로의 미세먼지 상태는 '나쁨'이지만, 대덕성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바로 옆의 교동섬에서 측정한 결과는 '보통'으로 바뀐다. 나무가 더 많은 도시숲에서의 결과는 '좋음'이다. 나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결과다. 공기 정화 식물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가 뒤를 잇는가 하면, 언론은 앞다퉈 공기 정화 효과가 높은 식물을 소개한다. 나무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레 늘어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뿌연 먼지에 휩싸인 봄을 맞을 때마다 그랬다. 그때도 사람들은 황사를 막으려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했다. 맞춤형 식목일이 들어 있는 시기여서 누구라도 나무를 이야기하기 좋았다. 그러나 비 잦은 여름 되면 사람들은 나무를 잊었다. 온 땅을 누렇게 뒤덮던 황사가 사라지는 것보다 빠르게 나무에 대한 관심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러다 다시 황사가 다가오는 이듬해 봄이면 잊었던 나무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없는 반복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봄의 황사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찾아들지 않는 미세먼지가 문제다. 봄에만 나타나던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한겨울에도 바람 적을 날에는 우리 산과 들을 삼켜 버린다. 파란 하늘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거의 방목면을 닮은 마스크로 무장한 뒤에야 거리에 나선다. 맑은 공기가 급해졌다. 여러 방안이 떠오르고 회자하지만, 무엇보다 나무를 심는 일만큼 미세먼지를 막는 데 효과적이 대책이 없다는 게 하릴없는 결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내내 이어진다면,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무성한 이야기의 양과 실제로 나무가 심어지는 양이 비례하지 않으리라는 건 그 동안의 경험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 흡수와 같은 실용적 이유만으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또다른 실용적인 이유로 나무를 베어 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다. 이를테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다. 심는 나무 못지않게 베어 내는 나무도 늘어난다. 이를테면 지자체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심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논과 밭에 그늘을 드리워서, 뿌리가 걸으므로 드러나면서 도로를 파손해서, 상가 간판을 가리고 신호등을 가린다 해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이유로 사랑 받아온 나무를 베어 내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은행나무의 여러 별칭 가운데에 공손수(公孫樹)라는 이름이 있다. 할아버지가 심고 손자가 열매를 얻는다는 뜻에서 붙인 의미 있는 이름인데 새로 심은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소득을 주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은행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그렇다.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됐든, 열매를 얻는 효과가 됐든, 나무를 심어 실용적 이익을 얻으려면 수십 년 걸린다. 단발적인 관심으로는 나무를 통해 얻을 게 없다.

아무리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높은 나무라 해도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40년은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미세먼지는 다시 이 땅을 덮을 것이다. 사람들은 입으로만 나무를 이야기하거나, 이욕과 나무에 대한 관심조차 서서히 잃어 갈지 모른다. 나무는 백년을 내다보고 심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근시안이 너무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날들이다.

기고



천정배 국회의원 (광주 서구 을)

한전 배구단 광주 유치에 힘을 모으자

육이 프로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엔 연구자 팬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수적이다. 우리 광주는 프로야구 타이거즈가 열약한 조건에서도 11번의 우승을 거머쥐도록 했다. 수원시에 의따로 있는 한전 배구단은 2018-19 시즌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다. 모기업에 따라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여자 배구단은 2017-18 시즌에 창단 이후 최초의 리그 우승을 일궈냈다. 현재 광주에는 문정초, 문흥중, 전자공고, 조산대, 광주대 팀이 있다. 여기에 한전 배구단이 오면 엘리트 체육 연계 육성성이 완성된다. 광주엔 생활체육 동호회 240여 개, 교직원 배구팀 80여 개가 활동하고 있고 전국 유일의 좌식 배구(장애인 배구)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프로 배구 활성화를 위한 저변이 매우 넓다. 이런 호조건 속에서 한전 배구단에 대한 지역민들의 응원, 그리고 시와 유관단체들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한전 배구단의 발전을 위해 연구지 이전은 바람직하다.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라도 한전 배구

단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 야구와 축구가 거의 전부인 우리 지역에 '겨울 스포츠의 꽃'인 배구가 들어오면 새로운 관람 문화 정착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남해안의 중심 도시인 광주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 경상남도, 제주에 접해 있고, 중국이나 일본 팬들이 방문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용이하다.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한전 배구단이 수원에서 광주로 연고를 옮기는 것은 프로 스포츠의 지방 분산과 문화 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타당하다. 대다수의 광주시민들도 한전 배구단의 광주 유치를 바라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동계 스포츠 구단이 없는 광주에 새로운 활성화를 위한 저변이 매우 넓다' '한국전력공사 본사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등의 순으로 한전 배구단 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계 스포츠 불모지인 우리 지역에 프로 배구단 유치로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다. 지난 2014년부터 광주시와 시 배구협회는 한전 배구단의 광주 유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 측은 당시 광주시의 제안 내용이 한전 배구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주시 측에 2019년 이후 재논의를 하자고 통보하고 한전 배구단 측은 2016년에 수원시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광주시와 광주시 체육회에서는 한전 배구단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용 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염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광주시와 광주배구협회는 한전 배구단이 요구하는 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조속히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전 배구단 측은 이번만큼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광주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광주 유치를 수용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도 한전 배구단 유치와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의료칼럼



김종선 첨단우리병원 원장

고려인 광주 진료소, 따뜻한 의료인들의 사랑방

은 거의 매일 증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와 함께했다. 그 당시 나에게도 흥부와요괴와 과장이 불 모델이었고, 나도 그분처럼 열심히 하리라 다짐했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면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몰랐다. 최근에야 이 구절을 실천하는 의사가 주위에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런 분들을 해외 의료 봉사과 고려인 광주진료소에서 보고 있다. 고려인이 광주에 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다 고 한다. 고려인들은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노동자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의 삶이 열악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아파도 돈이 공했던 고려인들에게 몇몇 의사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올해 여러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세워졌다. 진료 환경이 많이 개선돼 매주 화요일 밤은 진료소 불이 환하다. 화요일에는 50여 명의 의료진이 돌아가면서 야

간 진료까지 한다. 다들 각자 병원에서 진료하느라 피곤한 상태지만 고려인들의 고마워하는 눈길을 보면 금세 피로가 사라진다. 나는 진료소 총무로 한번씩 둘러보아야 할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깜짝 놀란다. 뜨거운 진료실의 열기, 줄지어 링거를 맞고 있는 주사실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버일까? 모원장은 고려인환자들이 안 잊혀져서, 매주 진료할 정도로 성의가 대단하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정신과 원장도 있다. 약대생과 약사도 공부를 하면서 러시아어로 약에 대해 친절하게 복약 지도를 해준다. 대학 병원 간호사들이나 종합병원 간호과장들도 직접 고려인들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고 있다. 한의사도 바닥 매트 에 무릎을 꿇고 정성으로 침과 부항을 해 주고 있으니, 매주 화요일 저녁 진료소는 사랑과 정성으로 넘쳐난다. 진료소 총무로서 여러 의료인과 연락하고, 결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봉사자 대부분이 많은 봉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

람들이다. 개인적으로 희망이 있다면 젊은 의사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젊은 의사들은 바쁘다. 병원에서도 집안에서도 할 일이 많다. 그렇다 보니 주위를 둘러보기가 쉽지 않다. 6시 반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애들을 돌보는 가정적인 모습이 젊은 의사들이 꿈꾸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바쁜 우리 후배들이 함께 동참한다면, 더 좋은 진료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부탁해본다. 또 다른 문제로는 고려인들이 만성이 나 난치성 병이 생겼을 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원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는 뒤에서 밝혀주고, 도와주는 제도와 사람들이 있어야 의료진들이 과감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아직도 배고프다. 많은 의료진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 성실한 의료진과 따뜻한 후원자들이 함께 한다면, 더 많은 고려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지금껏 나에게 찾아오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로서 나의 의무이고, 모든 것인 줄 알았다. 상당히 수동적인 생각이었다. 내가 전공하고 있는 정형외과 질환은 언뜻 보기엔 단순한 근육통이나 염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다른 질환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레이저던 기간 밤새워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가 필요함을 알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다니며 새로운 진단법과 병명을 익히고 있다. 평생 공부하는 게 의사의 숙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문의가 돼서 처음 직장이 종합병원 이었는데, 퇴근 무렵에 오는 응급 환자가 있다. 야간에 수술하고 증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다 보면, 병원에서 지새는 날이 적지 않았다. 나보다 흥부와요괴 과장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화)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군 공항 이전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광주 군 공항 이전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가 최근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들은 신속한 이전을 위해 국방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여 온 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이다. 이용성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는 그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5조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어서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양 자치단체장과 국방부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또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후보지 선정을 서둘러달라고 건의했고, 김 지사는 이전 대상 지

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군 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 아래 전남 4개 군을 대상으로 적합성 검토와 협의에 나섰으나 여태껏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동안 광주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는 군 공항, 전남은 민간 공항 이전에만 치중한 데다 전북에 새만금공항까지 추진되면서 무안공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결정을 감안하면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를 먼저 선정한 뒤 시도와 함께 주민 설득에 나서거나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비 후보지 선정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명단 공개 불구 사립 유치원 비리 여전했다

비리 유치원들의 실명이 공개된 이후에도 광주-전남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훨씬 초과한 24.63%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학급 운영비 1200만 원을 부당 모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업체에 송금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육청 지원금을 수천만 원씩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이다. 회계 비리가 문제가 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최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립 유치원 30곳을 감사했는데 30곳 모두에서 회계 비리 등 218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특히 광주 A유치원은 2018학년도 원비를 2017학년도 44만 4500원 대비 1.01% 인상한 44만 900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원아 1인당 프로젝트 2000만 원, 영어 3만 원, 창의 사고

수업 5만 5000원을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 실제 원비 인상은 시교육청 기준을 훨씬 초과한 24.63%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학급 운영비 12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B유치원 역시 최근 3년간 졸업 앨범비와 우유 값 등을 현금 또는 업체 계좌 송금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받음으로써 원비 인하 및 동결 유치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교육청을 속여 8565만 원을 타냈다. 전남도교육청도 같은 기간 9개 유치원을 감사, 9곳 모두에서 24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그리고 보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왜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극도로 반대했는지 분명해진다. 국가 보조금을 제 주머니돈으로 생각하는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 유치원 지원 축소 등 근본적인 해법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한 금융 기관이 금융 자산 10억 원이 넘는 부자 99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2018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자들의 총자산은 평균 133억 원, 연평균 소득은 4억 5000만 원이었다. 이들 중 93.1%가 투자 목적의 주제를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57.3%는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상속·증여를 받았다. 보고서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노력 없이 부자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빈부 격차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정당한 몫을 국가와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빈부의 차가 지나 치면, 결국 국력 저하와 경제 위기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 격차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정부는 1999년 7월 대통령령으로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설립했으며 참여정부는 2004년 6월 이를 '빈부 격차 차별 시정 위원회'로 개편해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전인 2008년 보건복지부

에 통합되며 유아무야돼 버렸다. 이후 부등산 투기 세력과 대기업 등 기득권층의 부는 한없이 증가했다. 결국 2018년 4분기 빈부 격차가 분기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소득이 1년 전 대비 무려 17.7%가 감소한 반면 소득 최상위 소득은 10.4% 증가함으로써 1대99의 구도가 완전히 고착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더 벌어진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세제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제도적인 미흡과 여전히 기득권층의 반발 등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있는 자'들의 과도한 욕심을 제어하고, 가진 부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의 분배'를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노력을 해도 여전히 '없는 자'들이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윤형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정·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다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